월요광장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기술

홍 상 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스티븐 스필버그의 2001년 영화 'A·I'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간들이 사랑을 뺀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서비스를 받고 사는 미래에 로봇 전문가 하비 박사는 '인간의 마음을 지닌 로봇'을 만들겠노라 선언한다.

그렇게 탄생한 인공지능 로봇 데이빗은 친아들이 불치병으로 냉동상태에 있는 어느 가정에 입양된다.

하지만 결국 친아들이 완치되면서 데이빗은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버려지고 만다. 인간이 되면 엄마의 사랑을 되찾을 것이라 생각한 데이빗은 엄마가 읽어주던 피노키오 이야기를 떠올리며 인간이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멸망한 지구를 찾아온 외계 생명체들의 도움으로 엄마와 꿈같은 하루를 보내고 영원히 잠이 들게 된다.

영화 속에서 데이빗이 인간이 되기 위한 여행을 하던 도중 하비 박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다. 인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의 말에 하비 박사는 '너는 이미 인간보다 더 인간답다'고 답한다.

영화가 개봉했을 때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인공지능 로봇 데이빗의 모습에 공감하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린 관객들이 많았다. 인간의 마음을 지닌 로봇을 보며 과연 인간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봤던 기억이 있다.

그동안 빛의 속도로 발전해온 기술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했지만 우리의 감성을 황폐화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더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기술이 필요한 때다. 그런 기술이 바로 문화기술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서왔다. 꾸준히 국내외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손잡고 우리의 문화를 풍요롭게 할 신기술 개발에 힘써왔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상용화와 마케팅, 해외진출 등도 지원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성과를 맺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컴퓨터그래픽 전시회 '시그라프 2014'에서 529만 달러에 이르는 계약 상담실적을 거뒀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탄생한 문화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애니메이션 '넛잡'은 북미 3000개 이상의 영화관에서 개봉하면서 한국영화 최초로 흥행수익 1억200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2014 광주비엔날레'에서도 우리 문화기술의 성과를 엿볼 수 있었다. 프로젝터 빔과 레이어 내부조명을 활용해 관객들이 평면 공간을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놀라움을 선사했던 개막 공연은 첨단 3D 맵핑 영상 기술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우리 문화기술업체가 구현한 것이었다.

콘텐츠 산업 뿐 아니라 모든 사회분야에서 창의성과 융합을 통한 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즈음 문화기술의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기술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산업과 문화가, 문화와 기술이 융합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문화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환경은 척박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1%에 불과하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에 비해 경험과 감성, 상상력과 이야기를 담겨진 문화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탓일 것이다.

우리 문화기술로 만들어진 문화콘텐츠가 우리 국민뿐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며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문화융성'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법조칼럼

죄에 상응하는 형

이 종 혁
광주지검 검사

"4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몇 달 전 공판검사로서 관여하였던 무면허 운전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5년 전 검사로 임관한 이래 접해 보았던 수많은 무면허 운전 사건 중 그 횟수가 가장 많은 사건이었다. 대부분은 1회 또는 많아야 수회 정도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실제 그 운전자가 그 보다 많은 무면허 운전을 해 왔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라도 그 입증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기업체 직원이었는데 누군가가 투서를 넣은 모양이다. 피고인은 몇 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분명히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텐데 계속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결국 그 공기업체 주차장 CCTV와 출입기록을 통해 실제 피고인이 약 70일 동안 무면허로 운전하여 출퇴근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얼마 전에서야 어렵게 정규직이 직원이 되었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실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 묻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불과 한두 달 전이라고 답하였다. 필자는 법정에서, 어렵게 얻은 정규직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공기업체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진술을 하며 수사검사의 의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벌하여 실직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양형이유로 삼아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은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되고, 공기업체나 대기업체 직원들도 기업 내규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들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내지 준법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과 기업내규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의무의 보상으로 신분보장이나 품위유지비 지급 등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과 기업내규를 이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보다 오히려 그들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결과일 것이다(실제 이 사건은 그러한 이유로 항소하였다).

한편으로는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그들이 겪게 될 일반인보다 가혹한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선처한 판결이 일면 수긍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같은 정도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같은 정도의 법률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같은 정도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라도 개개인의 지위와 능력에 따라 같은 정도의 고통이나 효과가 있도록 행위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형벌감당능력까지 고려하여 처벌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법철학적인 물음에 빠져 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법과 제도는 그러한 개개인의 지위나 능력, 즉 형벌감당능력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제 개개인이 어떠한 형벌감당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법집행기관인 검사로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의 원칙에 따라 구형과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양형제도가 현실화되는 것을 꿈꾸면서.

기 고

노로바이러스의 계절

김 민 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수의학 박사

지난 주말 동네 수산시장에 갔더니 방어, 가자미 등 제철을 맞은 싱싱한 생선들 한 켠에 벌써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생굴이 자리하고 있었다. 햇물이라 저녁상에 올리고 싶어 덥석 한 봉지 담아 오긴 했는데 혹시 먹고나서 배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늦더위가 한창이던 엊그제까지도 세균성 식중독으로 노심초사했었는데, 이제 또 노로바이러스를 걱정해야 하는 겨울이 코앞에 와 있으니 그야말로 일년 내내 식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틈이 없는 것 같다.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전체 식중독 환자 4958명 중 1606명(33%)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광주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사 환자의 가검물을 수집해 설사원인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해 11월 전체 설사 환자의 37.5%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에는 55%까지 증가함으로써 겨울철 내내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수도권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발생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대형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처음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 후 발생이 계속 증가해 경제적 손실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젠 아예 재난과학으로 분류돼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노로바이러스 저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가 해마다 식중독 주범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노로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 대항하는 생존력이 아주 강하다. 섭씨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되며 10ppm의 염소농도에도 살아남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또한 입으로 18개의 바이러스만 들어가도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므로 만개 이상을 섭취해야 발병하는 살모넬라와 같은 세균성 식중독에 비하면 아주 쉽게 감염될 수 있다. 환자의 배설물 1g에서 10억 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하니까 10g의 환자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로 약 500억명,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 인구를 감염시키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분류가 어려울 정도로 종류가 많고 계속 변이를 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한번 감염됐다 하더라도 또다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통한 면역을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이렇게 제어하기 어려운 노로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하게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뿐이다.

노로바이러스의 주된 오염원은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이다. 이들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물과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 농수산물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고, 이렇게 오염된 식품을 충분히 세척하지 않거나 조리하지 않고 생식할 경우에 감염이 발생한다.

굴을 포함한 어패류는 해수를 빨아들여 플랑크톤 등의 먹이만 체내에 남기고 물은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수에 존재하는 노로바이러스가 내장에 농축된다. 특히 굴은 겨울철에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생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굴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의 경우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변에 환자가 있을 때는 분변이나 구토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 바닥은 염소로 소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급식소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 지표의 오염물질이 지하수 배관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간단하지만 손 잘 씻고, 잘 끓여 먹기만 해도 겨울철 식중독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올 겨울 식중독 걱정 없이 잘 익힌 푸짐한 굴찜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밥상을 마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

社 說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빚은 담양 화재 참사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 참사가 담양의 한 펜션에서 발생해 대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15일 오후 9시 45분께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황토흙집 펜션에서 불이 나 수련 모임에 온 대학생 4명이 사망하고 투숙객 등 6명이 화상을 당했다.

투숙객은 대부분 나주 동신대학교의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소속 재학생과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곳은 펜션 별관 단층 형태의 바비큐장으로 사상자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다. 바닥은 나무, 내벽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억새로 돼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고기를 굽던 중 불티가 지붕으로 튀어 전체로 확산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이번 사고도 총체적 인재(人災)에 의한 참사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화재 현장엔 소화기가 1대밖에 없었고,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문제의 바비큐장은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았고 담양군은 소방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했다.

이 펜션은 연 면적이 1000㎡에 못 미쳐 안전 점검대상도 아니었다. 지난 2005년 5월 숙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펜션은 1년에 두 차례 위생 점검만 받아왔다.

펜션이 도처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데도 법과 제도는 겉돌고, 업주의 안전 불감과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이 맞물려 화를 키우고 있다. 올 들어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세월호 및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등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온갖 문제점과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전남도는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 엄히 조치해야 한다. 또한 건축 허가에서부터 관리실태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의식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와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문화전당 진입로 개설 9년째 제자리라니

내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개관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진입로 개설은 9년째 원점을 맴돌고 있다. 전일빌딩 등 주변 건물의 활용 방안 또한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뿐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개관을 한다 해도 전당만 덩그러니 들어선 가운데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최근 광주시가 임택 의원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전당 주변 광산길은 지난 2005년 광주시가 법적 협의를 마무리했음에도 아직까지 도로 개설 사업비 193억 원 중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인즉 기획재정부가 전당 부지 기반공사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며 예산 반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9년째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또한 지난 2011년 7월 도시공사를 통해 138억 원에 매입한 전일빌딩의 활용 방안도 3년째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배경으로는 전일빌딩 내 외환은행 지분(60억 원) 매입 문제, 철거 후 신축시 소요되는 비용(266억 원)보다 더 많은 리모델링 비용(378억 원), 그리고 활용을 원하는 관련 단체들 간의 이해 충돌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문화전당 개관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허송세월만 하다가는 광주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문화전당이 주변과 괴리된 도심 속의 섬이 되고 말 것이다.

광주시는 문화전당이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변 건물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 또한 문화전당 테스크포스 팀을 조직, 중앙정부와 협상에 나섬으로써 진입로 개설 등에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

無 等 鼓

시간여행

"나 다시 돌아갈래!" 영화 '박하사탕'(감독 이창동)에서 주인공 영호(설경구 분)는 선로 위에서 죽음을 맞기 직전 절규한다.

영화는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가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첫사랑에 빠진 순수하고 풋풋했던 한 청년이 1980년대 폭압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보여준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감독 데이빗 핀처) 역시 노인에서 갓난아기로 거꾸로 시간이 진행된다. 원작자인 F 스콧 피츠제럴드는 "인간이 80세로 태어나 18세를 향해 늙어간다면 인생은 무한히 행복하리라"라는 말에 영감을 받아 단숨에 써내려갔다고 한다.

고대로부터 시간은 불변의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05년 '특수 상대성이론'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초속 30만㎞)로 날아가는 우주선 내 여행자의 시간은 지구보다 천천히 흐른다는 것.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 광속(光速)으로 날아갈 우주선을 만들 수는 없지만 '시간여행'과 블랙홀(Black Hole), 화이트홀(White Hole), 웜홀(Worm Hole)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SF 작가와 영화제작자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터미네이터'나 '백투더퓨처'와 같이 많은 영화 속 주인공들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나 또는 미래로 날아가 기상천외한 활약상을 펼치는 스토리는 흥미진진하다.

최근 개봉된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에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웜홀'을 통해 다른 은하계의 행성을 방문하고, 시간을 거슬러 가는 우주여행은 이제껏 알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뒤흔든다. 영화 속 황폐한 미래의 지구 모습은 머지 않아 보이지만 우주여행 모습은 언제나 저럴까 싶기도 하다.

'역사에 만약(if)이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싶은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돼 안타까울 뿐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